#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1호【루계 제2384호】

주체105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음력 4월 8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주체105(2016)년 5월 9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한 의정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였으며 우리 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조국땅우에 자력자강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만리마시대,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충정의 7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전례없는 기적적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진두지휘하시여 당 제7차대회가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이며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필승불패의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와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고영광을 드립니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김 정 은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력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습니다.

력사상 그 어느 당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당은 자기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되였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각오와 의지는 더욱 굳세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자랑찬 위훈을 새겨온 잊을수 없는 추억과 가슴벅찬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될것입니다.

## 1.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와 겹쌓인 난관속에서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향도해온 백승의 기치였으며 선군정치는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난국을 뚫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게 한 승리의 보검이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 1)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

동지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전진하는 혁명위업입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군사적,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따라 전당과 전군을 주체사상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였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지난 세기말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의 역풍속에서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는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에 집중되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릴 단호한 의지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사상과 리념을 옹호고수하고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지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좌절과 반사회주의사상조류의 역풍속에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이고 정의이며 그 승리는 필연적이라는것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된 국제적환경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정치사상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갔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갔습니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였으며 우리 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였습니다.

민족의 대국상후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전쟁도발책동, 경제적봉쇄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운명은 위험에 처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국주의반동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로선변화》와 《체제붕괴》에 대하여 떠들던 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에는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의 원리가 구현되여있으며 혁명은 오직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우리 당의 드팀없는 반제자주적립장, 혁명적원칙이 집대성되여있습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의 기치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방식이 창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다져진 정치사상적, 군사적힘이 있었기에 선군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가 펼쳐질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위업에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3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면에서 계속)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엄혹한 시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강위력한 자위적국방공업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주체적국방공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성새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의 전 행정에서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은 혁명적당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원칙이며 이것은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반제자주적립장,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것이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우리 당과 인민앞에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있게 사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문제로 첨예하게 나선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정세가 엄혹할수록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총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지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갔습니다.

우리 당은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대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분쇄하였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지럽게 불어오는 부르죠아자유화바람과 《개혁》, 《개방》 바람도 선군총대의 기상으로 날려버리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였습니다.

랭전종식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압력과 전횡에 기가 눌리워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아가고있을 때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전의 시대인 오늘 반제자주, 사회주의원칙은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고수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무적필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압력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여지없이 짓부셔버리였습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책동에 매달리면서 우리 나라를 핵선제타격대상으로까지 정하고 침략책동에 광분하였지만 선군의 위력으로 철의 성새를 이룬 우리 공화국을 추호도 건드릴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침해하고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로골화되는 군사적공갈과 침략책동에 단호히 맞받아나갔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정의의 조국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 총궐기시켰습니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한결같이 일떠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함으로써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전쟁의 포성이 한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들은 비록 생활이 유족하지는 못해도 전쟁을 모르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선군정치의 덕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최대의 공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속에서도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국번영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켰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이고 념원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에서 발휘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한 우리 당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였습니다.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총대를 틀어쥐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것은 력사의 기적이며 이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동지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 선군정치가 열어놓은 승리의 길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가 힘차게 전진하고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잃는 민족의 대국상을 또다시 당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잃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의 생전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섰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당 제4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들고나가려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향도적 력량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는 한편 당안에 강철같은 기강과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백방으로 높이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로선입니다.

당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우리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대로 부강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운동을 조직전개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였습니다.

우리는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틀어쥐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땅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국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고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견지해오신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 총결기간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전대미문의 험로역경속에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성스러운 우리 당력사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입니다.

## 2)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동지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것입니다.

사상과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론과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자주의 정치로선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웠습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이 이색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우리 내부에 들이밀어 혁명대오를 변질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온 사회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천만군민이 투철한 혁명보위정신과 견결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을 지니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불패의 사상강국으로 위력떨치고있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입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철학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로숙한 령도예술로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에 의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사회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공고화되였습니다.

(4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3면에서 계속)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당과 국가활동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정치무대에서 존엄높은 정치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세상에 둘도없는 청년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문제해결의 근본으로 틀어쥐고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청년동맹에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맡겨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억세게 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이 맡겨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머리우에 철퇴를 안기였습니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입니다.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청년문제,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세상에 자랑할만 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운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커다란 승리입니다.

청년강국을 건설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활력있고 희망에 넘친 주체의 정치사상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선군혁명로선, 자위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킨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군사강국건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군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중앙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강군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준비되였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혁명적군풍과 강철같은 군기가 확립되고 정규화적면모를 훌륭히 갖춘 최정예전투대오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전군에 타오른 백두산훈련열풍속에서 인민군장병들이 김일성-김정일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전능력을 지닌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갖춘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기개와 위력을 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내무군은 당에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장성강화되여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방공업발전에서 최첨단돌파의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습니다.

핵무기연구부문에서는 세차례의 지하핵시험과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의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일격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생산보장하는 자립적국방공업, 혁명공업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첨단수준에 올라선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앞에서 적들은 공포에 떨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 전쟁억제력의 보호를 받으며 삶에 대한 걱정없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이 확립되고 민간무력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군사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군사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며 전체 인민이 결전의 시각에는 전민항전으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습니다.

로농적위군을 비롯한 민간무력이 자기 도와 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는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되고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확립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분투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을 건설한것은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이것은 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게 한 력사적공적입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총결기간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였습니다.

자립경제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강화되고 중요부문들에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졌으며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안변청년발전소와 희천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전망이 좋은 탄광, 광산들이 개발되였습니다.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생산공정이 꾸려졌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새로운 생산기지들이 일떠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한층 강화되였습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현대적인 기계제작기지들과 전자, 자동화요소와 기구생산기지들이 꾸려져 우리의 공업이 첨단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체신발전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운수, 건재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생산공정들과 기술장비, 운영수단들이 더욱 현대화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와 과학농사의 열풍이 일어나고 32만여정보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정리되였으며 1만여㎞의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전국도처에 일떠세운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 드넓은 청춘과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수산업발전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습니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개건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사업이 적극화되여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에 따라 주체적건축사상이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이 관철되여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이 자라나고 과학연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으며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핵심기초기술과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지식인의 슬기와 재능을 과시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주체조선의 장한 영웅들인 우리의 우주과학자들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권위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높이 떨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로선에 따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된것을 비롯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전당이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으로 훌륭히 건설되고 전국도처에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꾸려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해나갈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보건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기관들이 꾸려지고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되였습니다.

당의 체육중시정책에 따라 체육열풍이 일어나고 체육시설들이 개건되였으며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침으로써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총결기간 인민군대에서 선군문화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 국가의 자랑인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혁명적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주체문학예술의 성공작으로,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고 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온 사회에 혁명적랑만이 넘치게 되였습니다.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편집원들과 언론인들은 당정책의 충직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선전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혁명의 붓대로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실하게 받들었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여러 명승지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였습니다.

(5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4면에서 계속)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천만군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소중한 민족의 재부이며 부강조국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담보하는 고귀한 밑천으로 됩니다.

### 3)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근본비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투쟁하여온데 있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여온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수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해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입니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해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습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당은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수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하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게 되고 혁명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기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투쟁의 전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투쟁하여왔습니다.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전인미답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밀림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시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이 류례없이 준엄하였던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험난한 길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총결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고 우리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은 력사의 폭풍우를 뚫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수령영생위업의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확고부동한 혁명적 신념과 도덕의리에 기초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함으로써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수령님들의 구상과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나날이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계속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수령의 위업계승문제가 혁명의 운명과 인민의 장래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수십성상에 걸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수령복이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필승불패입니다.

## 2.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력사적사명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 1)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동지들!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여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력사적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은 억척으로 다져지고 우리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주인공이 되자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적 로정,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과정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여기에 우리 시대의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특출한 력사적지위와 백승의 위력이 있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부문에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끊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 문화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학기술강국과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6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5면에서 계속)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입니다.

3대혁명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통일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됩니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와 경제기술적봉쇄속에서 진행되며 우리 혁명의 대가 바뀌고있는 현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입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 2) 과학기술강국건설

동지들!

과학기술강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됩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과학기술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는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충정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입니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갈수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미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들에 힘을 넣어 세계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강국건설업적을 만년토대로 하여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야 합니다.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재료공학을 비롯한 중요부문 기술공학들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여러 경제부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강국을 떠받드는 주추입니다.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추세와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계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에네르기와 철강재, 화학제품, 식량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해결하며 에네르기보장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철생산기술을 완성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야 합니다.

농업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며 경공업부문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과학기술강국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따라 과학기술부문의 연구일군수를 가까운 기간에 3배이상 늘여야 합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적산업과 현대화된 경제를 운영해나갈수 있는 관리인재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개발력량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과 지도관리를 바로하고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하며 과학연구기관들이 연구사업을 제각기 분산적으로 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첨단돌파계획, 첨단기술산업화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전략적목표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바로세우고 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작성과 수행정형을 국가적으로 장악지도하고 추진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비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문과학연구기관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연구기관들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며 응용기술연구는 해당 성,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연구개발단위에서 맡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이 기초과학연구와 첨단과학기술개발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며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과학기술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는 연구력량과 개발단위들을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야 합니다.

국가예산편성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의 몫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지방예산과 공장, 기업소들의 기업소기금을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잘 운영하여 연구개발자금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7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면에서 계속)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밀어주어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 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학습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경제강국건설, 인민경제발전전략

동지들!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제전반을 놓고볼 때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경제강국입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며 첨단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현대적기술에 토대하여 기초공업부문의 주체화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원유를 비롯한 중요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합니다.

에네르기, 동력문제와 식량문제는 인민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집니다.

에네르기생산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는 방향에서 동력기지건설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에네르기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국가적인 에네르기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에네르기생산방식을 개선하며 나라의 경제를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뿐아니라 앞날까지 예견성있게 내다보면서 식량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이며 농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식량문제, 농업문제해결의 대강으로 틀어쥐고 끌까지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구현하여 모든 경제부문들을 조화롭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규석과 희토류광물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는 경제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고 록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입니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생산력발전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락원이라는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생활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확대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단계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입니다.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력문제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5개년전략수행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생산된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며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고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계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지금 건설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의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 전력문제해결의 전망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확보탄량을 더 많이 조성하고 새로운 탄광과 갱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며 원료,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세워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대야금공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선진기술에 의거하여 철강재생산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합금강과 규격강재의 품종을 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규률을 강화하여 철도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철도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교류전기기관차와 같은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비하고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추진하며 철도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은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첨단설비들을 새로 장비하는것과 함께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연생산세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측정설비와 공구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보수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없애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전략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리용하는 석탄건류공정을 꾸리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여 메타놀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8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7면에서 계속)

건설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 편리,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설계수단과 건설장비, 기공구들을 현대화하며 건식공법을 장려하고 령에네르기와 령탄소건축기술, 지능건축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건재생산을 전문화, 전통화하며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부문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며 지방별, 품종별수요에 맞게 종자생산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배치를 바로하고 농작물비배관리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성있게 관철하여야 합니다.

축산부문에서 집짐승종자와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축산물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리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키며 어디서나 축산열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이며 전국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농기계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수산물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입니다.

수산단위들에서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가공체계와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대풍을 안아와야 합니다.

양어에서 로력절약형, 물절약형방법을 받아들이고 바다양어, 그물우리양어를 널리 전개하며 바다가양식면적을 늘이고 양식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방들에서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산림복구전투를 년차별계획대로 근기있게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양묘장들을 실리있게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며 군대와 인민이 모두 떨쳐나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중식시키며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과 인민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내각은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여야 합니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이며 그 전망은 락관적입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 4) 문명강국건설

동지들!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최근년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체계와 내용,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지만 아직 전반적교육수준, 특히 중등일반교육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능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기간에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지닌 나라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교종체계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인재에 대한 요구성과 기준은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대학들에서는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양성의 목적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련속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업기술교육체계도 계속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사범교육체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종합대학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소속시켜 교육과학력량과 교육설비들을 교원양성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대학 교육학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원들이 높은 교육학적자질을 지니도록 하며 교원재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교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늘이고 교육수준을 높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격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텔레비죤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을 통한 교육도 잘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생동안 배우면서 우리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 자립성을 높일수 있도록 과정안을 개선완성하며 실험실습과 기능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지적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며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과 직업기술대학들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교육강령을 바로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모든 교육단계에서 철저히 구현하여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과학기술교육을 지식전수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일수 있도록 실력평가방법을 개선하며 대학졸업생들이 해당 전공분야의 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일하면서 전문가자격과 기술자격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각급 학교들에 전자도서관과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 실험실습기지들을 잘 꾸리고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주요대학들을 세계적인 일류급대학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입니다.

(9면으로 계속)